# 광주 공중화장실서 음란행위… 시민 안전 위협

### 일부 근린공원 유사성행위 정황
### 커뮤니티 통한 만남… 금전 거래도
### 조명시설·비상벨 미비 범죄 우려
### 경찰 "순찰 강화 치안유지 주력"

"과거 집 앞 근린공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한 중년 남성이 이상행동을 보이며 뒤따라와 도망쳤어요. 께름칙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일부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진 유사성행위 장소였죠."

광주 시내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이 파악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자체와 경찰 당국은 실태 점검을 통해 조명시설 설치와 순찰 강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과거 한 근린공원 화장실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유사성행위 등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화장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밤이 되면 일부 행인들이 근처를 배회하거나 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장실 칸막이 등이 파손돼 구멍이 뚫리거나 일부 성인들이 화장실 불을 끄고 들어가서 장시간 나오지 않는 것도 자주 목격했다"며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여전히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워 손이 떨린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후 찾아간 광주의 한 근린공원 화장실.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산책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지만, 주변에 조명시설이 미비해 일몰 후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다.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아 각종 범죄 발생에 취약해 보였다.

기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도중 주변을 배회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왔다.

동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30대 초반 B씨는 "최근 한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끔 찾아오고 있다"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일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시간 약속을 잡고 찾아오거나 현장에 와서 기다리는 식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외에도 광주 일대에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유명한 만남 장소가 여러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일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광주 일부 근린공원과 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만남 상대를 찾는 정황도 파악됐다.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일선 지자체는 조명시설 설치와 방범 활동 등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과거 화장실 칸막이 등을 파손하고 음란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 자치구 차원에서 칸막이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했다. 이후로는 공중화장실에서 음란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 내부에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문제가 파악되면 조명시설 설치와 유관기관과 연계한 방범 활동 등을 검토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화장실 내 탈선 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현장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일부 시민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등을 파손해 구멍을 내고 신체를 노출한다는 신고가 한두 차례 접수돼 즉시 조처했다. 하지만 관련 신고가 지속 접수되고 있지는 않아 일부 공중화장실이 음란행위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등의 범죄가 이뤄지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우범지역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유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제3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지난 27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 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에서 국내·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 퍼레이드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개최했으며 쥬라기캅스와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상상꾸러기 꾸다, 두다다쿵, 레인보우버블젬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13곳 등이 참가했다.

나건호 기자

# 옛 전남도청, 도청 본관·경찰국·상무관 등 5개로 나눠 설계

### 전시 콘텐츠 연출·계획 첫 선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도청) 원형 복원을 앞두고 도청 내부 전시 콘텐츠 구성안이 5·18 단체 관계자들에게 최초 공개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 2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기본설계 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난 2월 28일 도청 전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연 추진단이 내놓은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물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10차례 실무협의, 4차례 전시 자문과 미국 뉴욕 911 기념관 답사와 같은 해외사례 등이 담겼다.

추진단은 도청을 △도청 본관 △도경찰국 본관 △상무관 △도청 별관 △도청 회의실·도경 민원실 등 5개로 나눠 전시 콘텐츠를 설계했다.

도청은 5·18 문화예술 감상 공간과 최

후 항전을 기억하는 현장 기념과 추모·참여와 공감의 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첫 구상안인 만큼 복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등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역사성에 반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5·18 프로그램 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내부 전시물 실시 설계를 마치고 전시물 설치 공사에 들어간다. 준공 기한은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김은지 기자